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평일여가에서 나타난 변화(2004-2019)

Trends in the Workday Leisure-Time of Dual-Income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2004-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서지원*
울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이정은**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Seo, Jiw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ulji University
Lecturer Lee, Jung-eu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논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부모의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성차와 시간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과 2019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가 근무일인 평일에 작성한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생활시간 구성(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의 변화, 여가활동 유형(자원봉사, 교제, 참여, 종교, 의례,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 여가)에 따른 사용시간의 성차와 조사시기별 차이,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n=2,697).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조사시기 모두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경우 전체성인집단에 비해 필수시간은 짧고, 의무시간은 길며, 여가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시간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성차가 유의한 활동 가운데 2004년에는 종교활동을 제외한 모든 여가활동에서, 2019년에는 모든 여가활동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총 여가시간이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감소하였는데, 여가활동별로는 교제, 의례, 미디어 시간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감소하였고, 종교시간은 어머니 집단에서, 휴식시간은 아버지 집단에서만 감소하였으며, 참여와 게임놀이 시간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 유형 중 전체성인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3가지 여가활동(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생활시간 변수가 서로 다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맞벌이부모의 초기양육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과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생활시간사용, 자녀돌봄, 여가활동, 성차, 시간효과

*주저자: 서지원(jiwonseo@mail.knou.ac.kr), <https://orcid.org/0000-0002-8012-8252>

**교신저자: 이정은(jjia22@hanmail.net), <https://orcid.org/0000-0003-4105-260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orkday leisure time of dual-income fathers an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Data were gathered from the Statistics Korea Life Time Surveys from 2004(y1) and 2019(y2) (n=2,697). Life time was composed of three types(inevitable time, compulsory time, and leisure time) and leisure time was categorized into 11 activities(voluntarism, participation, social relationships, religion, rituals, culture and tourism, sports, game and play, media, rest, and others)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s and time effect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both working fathers and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spent less inevitable time, more compulsory time, and less leisure time, than other adult group. Second, fathers spent more time on 10 leisure activities except religion in y1, and on all activities than mothers in y2. In y2, less time on three activities(social relationships, rituals, and media)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less time on religion for mothers only, more time on two activities(participation, game and play) for both groups were spent than y1. Third, in the regression analysis of fathers' and mothers' leisure time on three leisure activities(sports, game and play, and media) with a distinct pattern from leisure time for adult group between y1 and y2, socioeconomic variables and lifetime variables showed different effects by gender and waves. Based on the results, family policy and programs to improve the work-life balances of working fathers and mothers discussed.

Key words: lifetime use, child care, leisure activities, gender difference, time effects, family policy

I. 서론

우리사회에서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직되고 여러 분야에서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여 저출산 정책이 강화되었으나, 상당기간이 흐른 2022년 2분기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0.7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저출산정책의 시행에도 출산율 회복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 부모의 자녀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본적 대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노동으로서의 돌봄'을 부모 양쪽이 공평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또다시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아버지의 가사노동 수행이 소폭 증가하여 성차의 간극이 미세하게나마 좁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흐름이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은 시간투입이나 활동내용의 구성 측면에서 절대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에서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원과는 구분되는 속성을 지니지만, 시간자원 역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성별, 계층별 요인에 따른 불평등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생활시간 연구에서 시간의 배분 경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적 변동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집단 간 불평등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분야의 선행연구(김유경, 2022; 정형안·이윤석, 2020; 조보배, 2022)는 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투입한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시간제약을 전제하면, 자녀돌봄에 투입된 시간량은 다른 영역의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수시간인 돌봄 이외의 다른 생활시간의 사용 역시 맞벌이부모의 일상과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OECD(2015)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Life Index)'에서도 한국의 일생활균형(work-life balance) 수준은 38개 조사대상국 중 36위에 그쳤다. 여가와 개인유지에 쓰는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여가시간의 배분에서 성별 불평등 정도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부모에게서 더 심각하여 '여가빈곤층'으로 분류될 정도인데, 특히 어머니의 여가빈곤 문제를 규명한 선행연구(김진옥·고은주, 2015)도 부모로서의 삶을 통합적으로 조명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가시간은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닌, 선택에 의한 자유시간으로 단순하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여가를 보내는 세부활동의 방식과 내용의 구성에 따라 시간의 효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여가시간에 대한 접근에서는 여가활동 유형별로 효용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보면 생활시간을 크게 세 가지 영역, 즉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할 때, 여가시간은 24시간 중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측정된다. 하루 24시간 중 생존 자체에 필요한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필수시간과 일이나 학습에 사용하는 의무시간을 제외

한 나머지 시간으로 정의되는 여가시간은 다른 생활시간 영역에 비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율성이 개입한다고 전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양쪽 부모 모두 직장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역할과제를 가진 맞벌이가정의 경우에 여가시간에 어떤 유형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절대적 시간이 갖는 시간 자체의 본질을 넘어 가족자원으로서 효용을 지닌 시간에 주목하는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맥락을 반영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생활시간을 어떠한 활동에 얼마나 배분하여 사용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부모 각각의 시간사용 구조의 차이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면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모로서의 삶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생활시간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2004년과 2019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지난 15년 동안의 여가시간 구성의 변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어린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하고, 이들이 보내는 여가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인 활동유형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15년간 맞벌이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각의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생애주기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돌봄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 및 저출산정책 수립의 기초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여가의 의미

여가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을 의미하지만, 여가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학문 분야마다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사전적 정의와 유사한 시간론적 접근에서는 여가를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가 충족되고 남은 잔여시간으로 보았고(조광익·도경록, 2012), 활동론적 접근에서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활동 그 자체에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고 흡수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민경선, 2016). 목적론적 접근은 여가가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재량 시간인면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으로 구성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수단적 접근에서 여가는 노동의 피로를 풀어주고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도 같다(윤인진·배은식, 2009).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에 의하면 여가는 일과 생존을 위한 기초적 욕구를 위한 활동과 다르고, 그 활동에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속성을 가지며, 자유롭

게 선택한 활동을 통해 피로를 풀고 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여가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특히 여가시간 동안 움직임이 많고 신체활동이 활발한 경우, 사망률 감소,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등 건강함을 유지하는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강선영, 2010; 김의철·박연신, 2006; 한승엽 외, 2007). 반면, 여가시간에서 신체 움직임이 적으면, 비만, 만성질환의 이환, 우울증 등 건강문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김영옥·윤영선, 2010; 윤군애, 2002). 또한, 신체활동이 많은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관계형성에 더 적극적이고, 집단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역시 여가활동이 심신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있다. 여가는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여가활동 중 자원봉사나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하숙례·이근일, 2014),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곽한병, 2002).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은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강선영, 2010; 한승엽 외, 2007), 정서적 만족도, 행복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Hills & Argyle, 1998). 미국과 유럽의 시간일지 분석에서 개인의 시간 사용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이 길수록 행복감이 증가하였고,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박주연, 2022). 총 33개 국가 자료를 비교한 Wang & Wong(2014)의 연구에서도 여가시간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여가활동의 유형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달랐다. 즉, 혼자 인터넷을 사용하는 활동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타인과 어울리는 적극적인 활동들은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Flood & Genadek, 2016; Glorieux, Minnen & Van Tienoven, 2011). 또한, 자원봉사, 동호회,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조직 활동 참여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Han, 2015),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사회공헌형 여가활동이나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적극적 여가활동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남은영 외, 2012). 이처럼 여가는 절대시간량도 중요하지만, 여가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여가시간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내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시간 배분은 활동유형에 대한 임의적 선호를 나타내기

도 하지만, 계층과 같은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활동에 시간이 더 많이 투입하려면 다른 활동의 시간 투입은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 의무시간인 유급시장노동시간이 같다고 가정하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가정에서 수행하는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여가시간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편, 여가시간의 절대량은 여가활동의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가시간으로 10분이 주어졌을 때와 1시간이 주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혜련과 허식(2018)의 연구에서 여가시간이 부족할 경우 개인은 단순한 활동 위주의 소극적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반면, 여가시간이 길게 주어질 경우에는 적극적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유형 선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문화적 배경, 소득수준, 배우자 특성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문화활동 관련 참여로 이루어진 여가활동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윤나래, 2021)과 사회적인 관점(Chan & Goldthorpe 2007; Van Eijck 1997), 사회적 관계의 특징(Ateca-Amestoy, 2008; Warde & Tampubolon, 2002), 문화적 취향과 배우자의 일반적인 특성(Kraaykamp, Vangils & Ultee, 2008)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자원의 양과 유형, 가족의 구성과 역할도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윤대혁, 2008; 차승은, 2012; Kraaykamp 2002).

3. 맞벌이부모의 여가시간

여성가족패널 조사에서 유자녀 기혼 취업여성은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돌봄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총 노동시간은 평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반면, 여가시간은 평균 1시간 52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의 평일 여가시간 평균인 3.5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수준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맞벌이부모의 경우, 직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으로 인해 양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박은정 · 이성림, 2013), 퇴근 후 피로회복을 위한 충분한 여가시간도 부족한 실정이다(주익현, 2015; 차승은, 2010; 허수연 · 김한성, 2019). 특히,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김영미, 2014; 김진욱 · 고은주, 2015; 주익현, 2015)에서 여성은 장시간 근로와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경험하는 반면, 남성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정관리와 자녀돌봄의 주된 책임이 여전히 여성의 몫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생활시간조사 통계를 사용한 맞벌이부모의 시간사용에서도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시간이 주로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다(서지원 · 이정은, 2021), 맞벌이어머니의 경우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느라 시간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

어 왔다(박예은 외, 2016; 서지원, 2015).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의 여성인 어머니는 여가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절대적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영유아 발달단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돌봄주체가 돌봄에 쏟아야 할 시간을 단순경감시키는 방안을 넘어 아버지 돌봄의 참여와 그에 따른 어머니의 여가 보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맞벌이부모의 조사시기(2004, 2019)별 생활시간구성(필수시간/의무시간/여가시간)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맞벌이부모의 성별과 조사시기(2004, 2019)에 따른 여가활동별 시간사용량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맞벌이부모의 성별과 조사시기(2004, 2019)에 따라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간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맞벌이부모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오래된 2004년 자료와 최신의 조사인 2019년 자료를 선정하여 지난 15년 동안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크게 시간일지와 질문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일지를 토대로 행동유형을 9개의 대분류, 45개의 중분류, 15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10분 단위로 사용시간량이 측정된다. 이때 시간일지는 한 응답자가 서로 다른 요일의 시간일지 2개씩 작성한다.

본 연구는 미취학 자녀가 있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맞벌이를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여가시간 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자료에서는 아버지 시간일지 827건과 어머니 시간일지 702건이, 2019년 자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595건, 573건의 시간일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시간일지에서 여가시간은 총 11개(자원봉사, 교제, 참여, 종교, 의례,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여가, 휴식, 기타 여가활동) 하위활동에 사용한 시간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생활시간 구조의 분석을 위해 주된 연구대상인 여가시간 이외에도, 생활시간 중 필수시

간과 의무시간에 해당하는 자료도 포함하였다. 또한, 질문지 방식으로 수집된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Win 23이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구하고, 집단별 시간사용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른 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종속변수인 활동유형별 여가시간에

4.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필수시간	수면, 식사, 건강관리, 위생·외모관리의 필수활동에 사용한 시간사용량의 합계(분/일)
수면	잠을 이루지 못한 시간과 잠을 잔 시간을 포함한 활동
식사	식사, 간식 및 음료 섭취하는 활동
건강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위생·외모관리	위생과 외모관리를 위한 활동
의무시간	시장노동, 가정관리, 자녀돌봄, 이동에 사용한 시간사용량의 합계(분/일)
시장노동	일반수입노동, 무급가족일, 기타노동활동, 구직및창업, 자가소비노동을 포함한 활동
학습	학습에 사용한 시간사용량(분/일)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정리, 주거·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유지, 상품·서비스구입, 기타가정관리를 포함한 활동
자녀돌봄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미취학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씻기기, 등하교 돕기, 숙제·공부 봐주기, 선생님과 상담, 학교방문 등을 포함한 활동
그 외 가족돌봄	자녀 이외의 가족을 돌보는 활동
이동	출근, 퇴근, 일관련 이동, 학습관련 이동, 가족돌보기 관련 이동, 여가 관련 이동을 포함한 활동
여가시간	여가활동(자원봉사, 참여, 교제, 종교,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 여가활동) 유형별 시간사용량의 합계(분/일)
자원봉사	비조직 기반 자원봉사, 조직 및 공동체 기반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의무적 참여활동, 자녀교육 관련, 기타 참여활동
교제	대면교제, 화상 및 음성 교제, 문자 및 메일 교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교제 활동
종교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 집회, 모임 참가, 기타 종교 관련 활동
의례	결혼식, 장례식, 시제 등의 의식을 진행 또는 참가하는 활동
문화·관광	영화관, 연극, 콘서트, 미술작품, 박물관 관람, 스포츠경기관람, 관광드라이브, 기타 문화관광을 포함한 활동
스포츠·레포츠	걷기, 산책, 달리기, 조깅, 자전거, 인라인, 등산, 개인운동, 구기운동, 낚시, 사냥, 기타 스포츠레포츠, 그 외 집 밖의 레저를 포함한 활동
게임·놀이	게임, 놀이, 집단게임, 놀이를 포함한 활동
미디어	책 읽기, 실시간 방송 시청, 비디오 시청, 라디오 듣기, 음원·음반 듣기, 인터넷 정보검색을 포함한 활동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 담배 피우기 등을 포함한 활동
기타 여가	개인 취미, 여가·교양학습, 유흥, 그 밖의 여가관련 활동 등을 포함한 활동
인구사회학적 변수	
연령	만 나이(세)
교육수준	졸업학력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소득수준	월평균소득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측정함 (하=월평균소득 100-150만원 이하, 중= 월평균소득 150-200만원, 상= 월평균소득 250만원 이상)
성평등의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4점으로 측정 (1=매우 찬성, 2=찬성하는 편, 3=반대하는 편, 4=매우 반대,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연령대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연령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조사에서 아버지의 경우 30대 비율이 낮아지고 40대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어머니의 경우 20대 비율이 감소하고 40대 비율이 증가하였다. 교육수준은 고학력화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어머니에게서 그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다. 고졸이하 학력은 2004년 아버지의 43.2%였으나 2019년 16.6%로, 어머니는 2004년에는 51.1%에서 2019년 15.2%로 크게 감소하였고, 대졸이상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2004년 42.8%에서 2019년 56.8%로, 어머니의 경우는 33.2%에서 54.3%로 증가하였다. 소득수준은 각 조사시기의 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상', '중', '하'의 3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지난 15년간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양 조사시기의 소득수준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어머니의 경우 소득 '하'의 비율이 크게 줄고 소득 '중'이 5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평등의식(4점 척도)의 경우, 2004년 아버지는 2.6점, 어머니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각각 3.1점, 3.5점으로 부모 모두 성평등의식이 높아졌다. 특히, 2019년 어머니의 경우 매우 높은 성평등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시기(2004, 2019)에 따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평일 생활시간 구성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평일 생활시간 구성을 두 조사시기(2004, 2019)별로 살펴보고, 이를 전체성인집단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두 시기 모두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평일 생활시간 사용은 전체성인 집단에 비해 의무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이 짧다는 특징을 보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성인집단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무시간은 각각 2시간 37분, 3시간 11분이 더 길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시간은 각각 1시간 58분, 2시간 32분 더 짧았다. 필수시간의 경우, 전체성인집단에 비해 맞벌이부모의 시간량 변화에서 나타난 차이가 의무시간이나 여가시간에 비해 적었는데, 아버지는 40분, 어머니는 41분 더 짧았다.

두 조사시기의 평일 생활시간에서 나타난 15년간의 변화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 필수시간은 41분 증가하고, 의무시간은 비슷한 수준이며, 여가시간은 43분 감소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필수시간이 51분 증가하고, 의무시간과 여가시간은 각각 27분, 19분 감소하여 의무시간의 감소는 어머니가, 여가시간의 감소는 아버지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때, 부모 모두 의무시간 구성에서 시장노동시간이 줄었으나 자녀돌봄시간은 늘어났다. 여가시간의 활동별 구성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참여, 게임·놀이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교제, 종교, 의례, 미디어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보였고,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시간은 두 시기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휴식 시간의 경우 아버지 집단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어머니 집단에서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여가시간 유형 중 전체성인집단의 조사시기별 변화 패턴과 차이를 보이는 유형은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등을 들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04				2019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빈도 (M)	% (SD)	빈도 (M)	% (SD)	빈도 (M)	% (SD)	빈도 (M)	% (SD)	
연령	20대	39	4.7	106	15.1	34	5.7	53	9.2
	30대	621	75.1	549	78.2	383	64.4	443	77.3
	40대	167	20.2	47	6.7	178	29.9	77	13.4
교육 수준	고졸이하	357	43.2	359	51.1	99	16.6	87	15.2
	전문대졸	106	12.8	110	15.7	162	27.2	175	30.5
	대졸이상	364	44.0	233	33.2	334	56.1	311	54.3
소득 수준	소득 하	226	27.3	495	70.5	234	39.3	155	27.1
	소득 중	366	44.3	148	21.1	189	31.8	319	55.7
	소득 상	235	28.4	59	8.4	172	28.9	99	17.3
성평등의식	2.6(.6)		2.9(.6)		3.1(.8)		3.5(.7)		
n	827		702		595		573		

〈표 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와 전체성인집단의 평일 생활시간 비교

(단위: 시간:분)

	아버지			어머니			전체성인			2019		
	2004 (y ₁)	2019 (y ₂)	증감 (y ₂ -y ₁)	2004 (y ₁)	2019 (y ₂)	증감 (y ₂ -y ₁)	2004 (y ₁)	2019 (y ₂)	증감 (y ₂ -y ₁)	Δ(전체성인 -아버지)	Δ(전체성인 -어머니)	
필수 시간	수면	7:28	7:38	+	7:19	7:50	+	7:37	7:56	+	0:18	0:06
	식사	1:38	1:49	+	1:31	1:44	+	1:37	1:55	+	0:06	0:11
	건강관리	0:02	0:01	Δ	0:02	0:01	Δ	0:10	0:10	=	0:09	0:09
	위생·외모관리	0:53	1:13	+	0:58	1:06	+	1:00	1:21	+	-0:13	0:15
필수시간 합계		10:01	10:42	+	9:50	10:41	+	10:24	11:22	+	0:40	0:41
의무 시간	시장노동	7:43	7:19	Δ	5:52	5:12	Δ	4:29	4:00	Δ	-3:19	-1:12
	학습	0:06	0:02	Δ	0:02	0:04	+	0:18	0:20	+	0:18	0:16
	가정관리	0:13	0:27	+	2:14	2:01	Δ	1:46	1:44	Δ	1:17	-0:17
	자녀돌봄	0:22	0:48	+	1:42	2:13	+	0:25	0:21	Δ	-0:27	-1:52
	그외가족 돌봄	0:03	0:01	Δ	0:04	0:01	Δ	0:05	0:02	Δ	0:01	0:01
의무시간 합계		2:11	2:03	Δ	1:47	1:43	Δ	1:52	1:36	Δ	-0:27	-0:07
여가 시간	자원봉사	0:01	0:01	=	0:01	0:01	=	0:02	0:02	=	0:01	0:01
	교제활동	0:29	0:20	Δ	0:32	0:23	Δ	0:43	0:36	Δ	0:16	0:13
	참여활동	0:03	0:10	+	0:01	0:11	+	0:02	0:14	+	0:04	0:03
	종교	0:02	0:01	Δ	0:05	0:02	Δ	0:09	0:08	Δ	0:07	0:06
	의례	0:06	0:01	Δ	0:08	0:01	Δ	0:09	0:01	Δ	0:00	0:00
	문화·관광	0:01	0:01	=	0:01	0:01	=	0:02	0:02	=	0:01	0:01
	스포츠·레포츠	0:14	0:14	=	0:09	0:09	=	0:24	0:32	+	0:18	0:23
	게임·놀이	0:12	0:20	+	0:02	0:07	+	0:15	0:15	=	-0:05	0:08
	미디어	1:44	1:12	Δ	1:14	1:01	Δ	2:24	2:23	Δ	1:11	1:22
	휴식	0:16	0:11	Δ	0:06	0:06	=	0:21	0:14	Δ	0:03	0:08
기타 여가		0:13	0:07	Δ	0:04	0:02	Δ	0:10	0:09	+	0:02	0:07
여가시간 합계		3:21	2:38	Δ	2:23	2:04	Δ	4:41	4:36	Δ	1:58	2:32
n		827	595	-	702	573	-	52,554	46,514	-	-	-

3.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대한 성차 분석

1)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대한 성차 분석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두 조사시기(2004, 2019)에 각각 평일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2004년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이는 여가활동은 참여, 종교,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여가, 휴식, 기타여가 활동이었다. 이러한 여가활동 가운데 종교 활동만 유일하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긴 시간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다른 활동은 모두 아버지의 시간이 어머니의 시간보다 길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 여가활동에서 맞벌이부모의 여가시간 사용의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유의한 성차를 보인 활동은 모두 아버지의 시간이 어머니의 시간보다 길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여가 활동은 두 조사시기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용시간에서 나타난 성차가 유의하였으나, 2004년 조사에서 유의한 성차를 보인 여가활동 중 참여, 종교활동 사용시간은 2019년 조사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2)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대한 조사시기(2004, 2019)에 따른 차이 분석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평일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이 조사시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t-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조사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여가활동은 자원봉사, 교제, 참여, 의례, 게임·놀이, 미디어 여가, 휴식, 기타여가 활동이었으며, 이 가운데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사용시간이 감소한 여가활동은 자원봉사, 교제, 의례, 미디어여가, 휴식, 기타여가 활동이었으며, 참여, 게임·놀이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더 늘어났다. 맞벌이아버지의 경우 종교,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활동에서는 조사시간 사용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여가시간에 대한 성차 분석(2004, 2019)

(단위: 시간:분)

	2004			2019		
	아버지 (M,SD)	어머니 (M,SD)	t (아버지-어머니)	아버지 (M,SD)	어머니 (M,SD)	t (아버지-어머니)
자원봉사	0:01 (0:11)	0:01 (0:05)	1.2	0:01 (0:00)	0:01 (0:06)	1.2
교제	0:29 (0:41)	0:32 (0:41)	-1.6	0:20 (0:33)	0:23 (0:34)	-1.8
참여	0:03 (0:28)	0:01 (0:04)	2.4 *	0:10 (0:17)	0:11 (0:18)	-.9
종교	0:02 (0:16)	0:05 (0:31)	-3.2 **	0:01 (0:07)	0:02 (0:17)	-1.6
의례	0:06 (0:20)	0:08 (0:22)	-1.7	0:01 (0:03)	0:01 (0:06)	-1.0
문화·관광	0:01 (0:12)	0:01 (0:09)	.7	0:01 (0:14)	0:01 (0:09)	.6
스포츠·레포츠	0:13 (0:36)	0:09 (0:26)	2.8 **	0:14 (0:35)	0:09 (0:26)	2.4 *
게임·놀이	0:12 (0:37)	0:02 (0:13)	6.7 ***	0:20 (0:44)	0:07 (0:22)	6.3 ***
미디어	1:43 (1:28)	1:14 (1:09)	7.1 ***	1:12 (1:12)	1:01 (0:59)	2.8 **
휴식	0:15 (0:27)	0:06 (0:16)	7.9 ***	0:11 (0:19)	0:06 (0:16)	4.2 ***
기타 여가	12.0 (0:42)	0:06 (0:28)	3.0 **	0:07 (0:31)	0:02 (0:16)	8.5 ***
합계	3:20 (2:02)	2:38 (1:38)	9.2 ***	2:29 (1:32)	2:02 (1:20)	5.3 ***
n	827	702	-	595	573	-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조사시기별 여가시간 차이 분석

(단위: 시간:분)

	아버지			어머니		
	2004(y ₁) (M,SD)	2019(y ₂) (M,SD)	t (y ₂ -y ₁)	2004(y ₁) (M,SD)	2019(y ₂) (M,SD)	t (y ₂ -y ₁)
자원봉사	0:01 (0:12)	0:01 (0:00)	-2.1 *	0:01 (0:05)	0:01 (0:06)	-.4
교제	0:29 (0:41)	0:20 (0:33)	-4.8 ***	0:32 (0:41)	0:23 (0:34)	-4.5 ***
참여	0:03 (0:28)	0:10 (0:17)	5.8 ***	0:01 (0:04)	0:11 (0:18)	15.7 ***
종교	0:02 (0:16)	0:01 (0:07)	-1.4	0:05 (0:31)	0:02 (0:17)	-2.6 **
의례	0:06 (0:20)	0:01 (0:03)	-7.3 ***	0:08 (0:22)	0:01 (0:06)	-8.0 ***
문화·관광	0:01 (0:12)	0:01 (0:14)	-.0	0:01 (0:09)	0:01 (0:09)	-.1
스포츠·레포츠	0:13 (0:36)	0:14 (0:35)	.2	0:09 (0:26)	0:09 (0:26)	.5
게임·놀이	0:12 (0:37)	0:20 (0:44)	3.6 ***	0:02 (0:13)	0:07 (0:22)	4.6 ***
미디어	1:43 (1:28)	1:12 (1:12)	-7.3 ***	1:14 (1:09)	1:01 (0:59)	-3.8 ***
휴식	0:15 (0:27)	0:11 (0:19)	-4.1 ***	0:06 (0:16)	0:06 (0:16)	-.2
기타 여가	12.0 (0:42)	0:07 (0:31)	-2.9 **	0:06 (0:28)	0:02 (0:16)	-2.3 *
합계	3:20 (2:02)	2:29 (1:32)	-6.9 ***	2:38 (1:38)	2:02 (1:20)	-4.2 ***
n	827	595	-	702	573	-

* $p < .05$, ** $p < .01$, *** $p < .001$

맞벌이어머니의 조사시기별 여가시간의 차이검정 결과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참여, 게임·놀이 시간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교제, 종교, 의례, 미디어여가 활동에 사용 시간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맞벌이어머니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휴식 활동은 조사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시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가활동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 집단 공통으로 차이가 있는 활동은 교제, 참여, 종교, 의례, 게임·놀이, 미디어여가, 기타 여가 활동이었다. 종교활동은 어머니 집단에서만, 자원봉사, 휴식 활동은 아버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4.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조사시기(2004, 2019)에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모형은 11가지 여가활동(자원봉사, 참여, 교제, 종교, 의례, 문화·관광,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 중에서 전체성인집단의 여가활동별 시간 사용과 비교하여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시간사용과 조사시기별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지난 15년간 전체성인집단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맞벌이부모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스포츠·레포츠, 전체성인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맞벌이부모는 증가한 게임·놀이, 전체성인의 감소폭에 비해 맞벌이부모의 감소가 두드러진 미디어를 선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3가지 여가활동(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에 따른 사용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모형 1~3으로 설정하였다. 여가활동별 회귀모형은 성별과 조사시기를 달리하는 하위 모형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공통으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성평등인식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독립변수로 하고, 통제변수로 필수시간(수면, 식사, 건강관리, 위생·외모관리), 의무시간(시장노동, 학습, 가사, 자녀돌봄, 그 외 가족돌봄)을 포함하였다.

먼저 두 조사시기(2004, 2019)에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을 결정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2004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를 살펴보면, 스포츠·레포츠(모형 1)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게임·놀이(모형 2)에서 아버지의 연령과 소득수준, 어머니의 연령을, 미디어(모형 3)에서 아버지의 연령을 들 수 있다. 부모 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스포츠·레포츠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길었고,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게임·놀이시간이 길었으며,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디어 사용시간이 길었다. 또한, 2004년에는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2019년에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게임·놀이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조사시기에 공통으로 각 모형의 여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없었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 가운데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시간 변수는 여가시간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먼저 스포츠·레포츠(모형 1)에서는 성별이나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시장노동, 자녀돌봄, 이동이 유의하였고, 아버지의 경우 수면이, 어머니의 경우 가정관리가 두 조사시기 모두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건강관리, 위생·외모관리, 학습, 가정관리는 2004년에만, 식사는 2019년에만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수면은 2004년에만, 식사와 건강관리는 2019년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놀이(모형 2)에서는 성별과 두 조사시기에 수면, 식사, 시장노동이 유의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가정관리와 이동은 2004년에만, 건강관리는 2019년에만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관리와 이동은 두 시기 모두에, 자녀돌봄은 2004년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모형 3)에서는 성별과 조사시기와 관계없이 수면, 식사, 위생·외모관리, 시장노동, 학습, 가정관리, 자녀돌봄, 이동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건강관리는 2004년에만, 그 외 가족돌봄은 2019년에만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그 외 가족돌봄이 2004년에만 유의하였다.

〈표 6〉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성별, 조사시기별 여가활동 유형별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스�포츠·레포츠(모형 1)						게임·놀이(모형 2)						미디어(모형 3)													
	아버지(모형 1-1)		어머니(모형 1-2)		아버지(모형 2-1)		어머니(모형 2-2)		아버지(모형 3-1)		어머니(모형 3-2)		아버지(모형 3-1)		어머니(모형 3-2)											
	2004	2019	2004	2019	2004	2019	2004	2019	2004	2019	2004	2019	2004	2019	2004	2019										
연령	-2	.3	.1	.3	.2	.3	-1	.3	-5	.3	-.6	.4 ^{***}	.0	-.1	-1.3	.5 ^{***}	1.2	.6	1.4	.7 [*]	.1	.5	.5	.8		
교육수준(기준: 고졸이하)																										
전문대졸	-2.8	4.0	14.1	4.4 ^{***}	1.8	.3	3.8	3.4	-2.3	4.1	-2.9	4.6	.4	1.5	-7.4	6.2	7.4	7.6	2.9	8.3	9.2	5.5	-9	9.8	9.8	
대졸이상	2.4	2.8	16.7	4.0 ^{***}	1.5	2.3	8.6	3.2 ^{**}	-5.8	2.9 [*]	-4.4	4.2	-1.5	1.2	-1.0	6.2	8.2	5.4	1.1	7.6	-5.0	4.5	-8.8	9.8	9.8	
소득수준(기준: 소득 하)																										
소득 중	-5.9	3.0	.4	3.3	4.7	2.5	2.5	2.7	-4.8	3.1	5.5	3.6	-1.3	1.3	-1.1	5.3	-2.7	5.7	-6.7	6.5	-9.0	4.9	-16.6	8.4	8.4	
소득 상	-6	3.5	5.1	3.5	.9	3.7	3.8	3.7	-2.0	3.6	7.5	4.1 [*]	-6	2.0	-4.7	5.9	-10.6	6.6	-12.2	7.3	6.7	7.4	-15.0	9.4	9.4	
성평등의식	3.7	2.0	-2.7	1.7	1.9	1.6	-8	1.6	-2.6	2.1	3.1	1.9	-0	.8	1.8	3.2	.3	3.8	-1.3	3.4	-1.6	3.1	1.4	5.1	5.1	
생활시간(단위:분)																										
수면	-1	.0 ^{***}	0.1	.0 ^{***}	-8	.0 ^{***}	-1	.0	-1	.0 ^{***}	-1	.0 ^{***}	-0	.0 ^{***}	-2	.0 ^{***}	-4	.0 ^{***}	-5	.0 ^{***}	-4	.0 ^{***}	-4	.0 ^{***}	-5	.1 ^{***}
식사	-1	.0	-1	.0 ^{***}	-1	.0	-1	.0 ^{***}	-1	.0 ^{***}	-1	.0 ^{***}	-1	.0 ^{***}	-1	.0	-4	.1 ^{***}	-3	.0 ^{***}	-5	.1 ^{***}	-5	.1 ^{***}	.4	.1 ^{***}
건강관리	-2	.1 ^{**}	-1	.1	-0	.1	.2	.1 ^{**}	-1	1.0	.3	.1 [*]	-1	.0	-0	.3	-4	.2	-3	.3	-0	.2	-0	.2	-5	.5
위생·외모관리	-2	.1 ^{**}	-0	.1	-1	.0	-1	.0	-1	.1	-1	.1 [*]	-0	.0	-1	.1	-3	.1 ^{**}	-6	.1 ^{**}	-6	.1 ^{**}	-6	.1 ^{**}	-5	.1 ^{**}
시장노동	-1	.0 ^{***}	-1	.0 ^{***}	-1	.0 ^{***}	-1	.0 ^{***}	-1	.0 ^{***}	-1	.0 ^{***}	-0	.0 ^{***}	-1	.0 ^{***}	-5	.0 ^{***}	-5	.0 ^{***}	-5	.0 ^{***}	-5	.0 ^{***}	-5	.0 ^{***}
학습	-1	.0 ^{***}	-0	.1	-1	.1	-0	.0	-1	.0 ^{***}	.1	.1	-1	.0	-1	.1	-4	.1 ^{**}	-8	.1 ^{**}	-5	.1 ^{**}	-5	.1 ^{**}	-4	.1 ^{**}
가정관리	-2	.0 ^{***}	-1	.0	-1	.0 ^{***}	-1	.0 ^{***}	-0	.1	-1	.0	-0	.0 ^{***}	-1	.0 ^{***}	-4	.1 ^{**}	-6	.1 ^{**}	-5	.0 ^{***}	-5	.0 ^{***}	-5	.1 ^{**}
자녀돌봄	-1	.0 ^{***}	-1	.0 ^{***}	-1	.0 ^{***}	-1	.0 ^{***}	-1	.0 ^{***}	-1	.0 ^{***}	-0	.0 ^{***}	-0	.0	-3	.1 ^{**}	-5	.0 ^{***}	-5	.0 ^{***}	-5	.0 ^{***}	-5	.1 ^{**}
그 외 가족돌봄	-1	.1	.3	.3	.1	.1	.2	.2	.0	.0	-0	.3	-0	.0	-6	.4	-6	.1	-7	.5 ^{***}	.7	.1 ^{**}	.7	.1 ^{**}	-1.1	.6
이동	-1	.0 ^{***}	-1	.0 ^{***}	-1	.0 ^{***}	-1	.0 ^{***}	-0	.0 ^{***}	-0	.0	-0	.0 ^{***}	-1	.0 ^{***}	-6	.0 ^{***}	-6	.0 ^{***}	.6	.0 ^{***}	.6	.0 ^{***}	-6	.1 ^{**}
상수	148.5	19.8	144.9	24.9	104.2	18.4	114.8	21.9	142.2	20.4	203.3	33.3	42.0	9.7	218.0	43.2	581.8	37.7	675.1	49.2	704.6	35.9	696.1	68.4	68.4	
F값	7.4 ^{***}	5.7 ^{***}	5.7 ^{***}	5.8 ^{***}	5.2 ^{***}	5.2 ^{***}	5.2 ^{***}	4.3 ^{***}	4.9 ^{***}	4.3 ^{***}	2.4 [*]	2.4 [*]	2.4 [*]	3.1 ^{***}	3.1 ^{***}	3.1 ^{***}	39.4 ^{***}	39.4 ^{***}	24.0 ^{***}	24.0 ^{***}	47.3 ^{***}	47.3 ^{***}	11.3 ^{***}	11.3 ^{***}	11.3 ^{***}	
R ²	.11	.11	.11	.12	.13	.13	.13	.15	.09	.15	.05	.05	.05	.05	.26	.26	.44	.44	.49	.49	.53	.53	.56	.56	.56	
n	827	595	595	702	573	573	573	595	827	595	702	573	702	573	573	573	827	827	595	595	702	702	573	573	573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무일인 평일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이 2004년과 2019년에 여가활동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대여가의 속성상 여가시간 연구는 근무일과 휴일에 따라 여가활동의 구성과 시간사용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는 맞벌이부모의 의무시간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평일인 근무일에 얼마나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며, 그 여가시간을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시간 효과와 젠더관점을 함께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생활시간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20세 이상 전체성인과 절대적인 사용시간량을 비교할 때, 2004년과 2019년 모두 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은 짧고 의무시간은 길었다. 맞벌이부모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 활동과 여가활동에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며 직장일과 집안일로 인한 이중노동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먼저 필수시간을 보면, 지난 15년간 맞벌이부모가 전체성인보다 낮은 감소폭을 보였으나 전체성인에서 나타난 변화추이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관계없이 맞벌이아버지와 맞벌이어머니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을 총합한 개념인 의무시간의 경우에는 전체성인집단에 비해 맞벌이부모의 절대시간량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큰데, 아버지는 2시간 37분, 맞벌이어머니는 3시간 11분 더 길었다. 이때, 아버지(10시간 40분)에 비해 어머니의 의무시간(11시간 14분)이 훨씬 길어 어머니의 이중노동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지만, 어머니의 경우 지난 15년간 27분 감소추이를 보인 반면, 아버지는 2분 정도로 약간이나마 증가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시장노동시간이 24분 감소하였음에도 가정관리와 자녀돌봄활동에서 사용시간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아버지의 의무시간 부담이 어머니보다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 15년간 아버지의 가정관리와 돌봄이라는 가사노동 참여에서 나타난 증가경향은 긍정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에는 전체성인집단에 비해 아버지가 1시간 58분, 어머니가 2시간 32분이 더 짧았다. 여가시간 사용량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길기는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여가시간의 변화는 아버지가 43분, 어머니가 19분 감소하여 아버지의 감소폭이 더 크다. 맞벌이어머니는 물론, 2019년의 맞벌이아버지는 과거 15년 전의 아버지에 비해 여가를 향유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부모의 경우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에서 절대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의무시간 수행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얼마만큼 제약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것이다.

둘째,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의 성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차를 보인 여가활동 항목의 수는 11개 항목 중 2004년 7개 항목(참여, 종교, 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 여가)에서 5개 항목(스포츠·레포츠, 게임·놀이, 미디어, 휴식, 기타 여가)으로 줄었다. 2004년에는 성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여가활동 중 종교활동만이 유일하게 어머니의 시간이 더 길었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성차가 유의한 모든 여가활동 항목에서 아버지의 여가시간이 어머니보다 더 길었다.

셋째, 맞벌이부모의 여가활동별 사용시간의 변화를 두 조사 시기(2004, 2019) 간의 시간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 11개 항목 중 아버지는 8개 항목에서, 어머니는 7개 항목에서 조사시기별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자원봉사, 교제, 의례, 미디어, 휴식, 기타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유의하게 줄었으며, 참여와 게임·놀이를 보면 여가시간은 늘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교제, 종교, 의례, 미디어, 기타여가에서 사용시간의 감소가 나타났고, 참여나 게임·놀이 시간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르다는 선행연구(Hills & Argyle, 1998)에서는 자원봉사나 참여 등의 사회공헌형 여가나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적극적 여가가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참여 시간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넷째, 성별과 조사시기를 모두 고려하여 맞벌이부모가 여가활동 유형별 사용시간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에 주목한 결과, 여가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있었다. 지금까지 여가시간 연구는 여가를 하나의 총체적 시간유형으로 묶어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여가활동의 유형별 속성에는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함을 반영하여 여가활동 유형별 사용시간을 단순계산으로 합하지 않고 각각의 여가활동 유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4년에 비해 2019년의 경우, 여가활동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의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에 평일 스포츠·레포츠와 같은 적극적 여가를 즐길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며,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게임을 여가로 즐길 가능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디어 여가는 스포츠·레포츠나 게임·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 여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회귀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포함한 다른 유형의 생활시간 변수가 여가시간과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여가활동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장노동시간은 대부분의 여가활동 유형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가정관리와 자녀돌봄 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여가활동유형이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다수의 여가활동 유형에서 2004년과 2019년에 유사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여가

활동에 시장노동시간, 가정관리와 자녀돌봄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기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맞벌이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돌봄시간이 아닌 여가시간 분석을 통해 초기 양육기에 남성과 여성이 각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자녀돌봄에 사용하는 절대적 시간의 성차가 여가시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하겠다. 여가활동이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돕고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며(Orthner & Mancini, 1990), 노동이 삶의 토대라면 여가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어(김광득, 2003)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well-being)과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한승엽 외, 2007).

생활시간 사용구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는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여가빈곤기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가결핍이 맞벌이부모의 생활시간사용의 주요 패턴으로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부모로서의 삶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추가자녀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초기양육기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우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생활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부모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더 뚜렷하게 경험할 우려도 있다. 부모의 여가시간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유진, 2017; Wang & Wong, 2014)의 맥락에서도 향후 우리나라는 부모로서의 책임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가 자녀돌봄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저출산정책과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의 차원에서 내실 있는 정책과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여가시간의 중요성을 보고한 연구(Lee & Zhang, 2010; Mouratidis, 2019)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한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외부체계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가정 내 부모의 역할부담을 줄임으로써 여가시간과 여력을 만들 수 있으므로(이여봉,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여가빈곤층에 해당하는 초기 양육기 맞벌이 어머니를 위한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점차 자녀돌봄 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의 감소를 경험하는 맞벌이아버지에 대한 관심도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5년간 평일여가의 경우에도 전체성인집단은 스포츠·레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8분 증가하였으나, 맞벌이부모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처럼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로서의 시간사용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부모에게 여가시간이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시간과 같은 소극적 여가의 경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난 15년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여가활동 유형에 비해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스포츠, 관람 등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가정 내에서 보내는 소극적 여가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윤인진과 김상운(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여가활동별 속성을 세심하게 고려하면 파편화된 여가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만 다양한 여가활동 선택도 가능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라면 평일에 여가시간이 생기더라도 자투리시간일 확률이 높으므로 여가와 관련된 이동이 필요하다는 가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여가활동일 경우에는 아예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여가활동의 유형은 가용시간량의 지속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타인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계획적 참여가 필요한 문화체험, 스포츠참여 등 활동적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 혼자 하는 여가활동도 의미미하지만, 타인과 어울려 활동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선행연구(Wang & Wong, 2014)를 고려한다면,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모를 위해 여가시간의 전체 시간량과 더불어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자투리시간이 아닌 적절한 시간량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즉, '가족의 날'과 같은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만 시행되지 않도록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맞벌이부모의 일상에서 부족한 스포츠활동과 같은 적극적 여가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여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여가에서 필요한 시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간의 투입과 더불어 경제적 비용 역시 여가활동의 선택에서 제약조건이 될 수 있다.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여가활동을 가족 단위로 즐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으로 바우처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이를 일하는 부모의 여가시간 보장과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의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만큼,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한 시간자료를 수집하여 맞벌이부모의 여가시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대에 여가를 보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함께 한 사람 분석을 통해 부모여가의 속성이 돌봄노동과 결합된 연장선상의 여가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게임·놀이를 하는 여가시간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여가활동이 어떠한 속성을 지닌 여가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간량 연구와 더불어 시간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벌이부모가 출근 전과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돌봄과 여가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가족여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시간일지 조사가 상세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으나 질문지조사를 통한 문항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시간일지 변수의 다양하고 복잡한 연구분석 활용이 어렵다. 향후 활동별 만족도 등에 대한 분석과 결혼 및 가족가치, 성평등의식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상세 질문 문항이 개발되어 조사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선영(2010). 중년여성의 삶과 신체형 여가활동 의미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4(2), 97-106.
- 2) 곽한병(2002).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의 관계성 연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11(1), 55-63.
- 3) 김광득(2003). 한국의 여가 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2003 학술세미나자료집. 8-32.
- 4) 김영미(2014). 복지국가 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1), 143-177. DOI : 10.17000/kspr.21.1.201403.143.
- 5) 김영옥 · 윤영선(2010). 태권체조 참여 노인의 인지된 여가 만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가웰니스학회지, 1(3), 1-10.
- 6) 김유경(2022). 미취학자녀를 둔 아버지의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자녀돌봄시간과 영향 요인-맞벌이 여부 및 돌봄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6(2), 71-84. DOI : 10.22626/jkfma.2022.26.2.005.
- 7) 김의철 · 박연신(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2(1), 161-195.
- 8) 김진욱 · 고은주(2015). 시간압박, 누가 얼마나 경험하는가?: 한국 기혼부부의 수면, 개인관리, 여가시간 결핍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5-161.
- 9) 남은영 · 이재열 · 김민혜(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10)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11) 민경선(2016).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만족감-여가시간에서 의 소득별, 연령별, 성별 격차-.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박예은 · 윤미 · 이예솔 · 이효진 · 정익중(2016). 시간빈곤이 일가족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35-56.
- 13) 박은정 · 이성림(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14) 박주연(2022).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유형별 행복감 차이. 문화산업연구, 22(2), 31-39. DOI : 10.35174/JKCI.2022.06.22.2.31.
- 15) 박혜련 · 허식(2018). 문화적 여가활동의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기혼가구의 가구특성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8(4), 1-12. DOI : 10.35174/JKCI.2018.12.18.4.1.
- 16) 서지원(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학술대회논문집. 87-103.
- 17) 서지원 · 이정은(2021).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9(2), 29-45. DOI : 10.7466/JFBL.2021.39.2.29.
- 18) 송유진(2017).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시간을 중심으로. 통계연구(2017), 22(4), 1-30. DOI : 10.22886/jkos.2017.22.4.1
- 19) 윤나래(2021).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청소년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여가만족도: 생활시간조사자료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7(1), 33-63.
- 20) 윤군애(2002). 아동기 과제중 위험 인자로서의 TV 시청시간, 사회계층요인, 부모의 과제중 및 부모의 활동수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2), 177-187.
- 21) 윤대혁(2008). 맞벌이 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87-109.
- 22) 윤인진 · 김상운(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162-203.
- 23) 윤인진 · 배은식(2009). 여가활동의 변화와 경제활동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1999년과 2003년 생활시간조사결과와의 비교. 여가학연구, 9(2), 89-111.
- 24) 이어봉(2019). 세대관계망이 부부간 가사분담과 여가활동 공유에 미치는 영향: 출생집단별 차이 및 발달단계별 변화. 가족과문화, 31(4), 149-181. DOI : 10.21478/family.31.4.201912.006.
- 25) 정형안 · 이윤석(2020). 가사, 돌봄, 유급노동 시간이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수면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3(2), 27-54. DOI : 10.31693/KJPS.2020.06.43.2.27.
- 26) 조광익 · 도경록(2012). 도시민의 여가소비와 주말 여가활동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6(4), 45-75.
- 27) 조보배(2022).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112(1), 121-146.
- 28) 주익현(2015). 계층별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사회과학논집*, 46(1), 111-135.
- 29)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 33(1), 27-49.
- 30) 차승은(2012). 기혼 취업자의 주말여가패턴. *여가학연구*, 9(3), 61-90. DOI : 10.22879/slos.2012.9.3.61
- 31) 하숙례 · 이근일(2014). 여가태도 및 여가정체성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8(2), 86-101.
- 32) 한승엽 · 김홍렬 · 윤설민 · 장윤정(2007).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연구-문화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22(3), 323-339.
- 33) 허수연 · 김한성(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DOI : 10.16975/kjfs.2019.64.001.
- 34) Ateca-Amestoy, V. (2008). Determining Heterogeneous Behavior for Theater Attendanc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2, 127-151. DOI : 10.1007/s10824-008-9065-z.
- 35) Chan, T. W. & Goldthorpe, J. H. (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Music in Eng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1), 1-19.
- 36) Flood, S. M. & Genadek, K. R. (2016). Time for Each Other: Work and Family Constraints among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 142-164. DOI : 10.1111/jomf.12255.
- 37) Glorieux, I., Minnen, J. & Van Tienoven, T. P. (2011). Spouse "together time": quality time within the househol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2), 281-287. DOI : 10.1093/esr/jcl016.
- 38) Han, S. (2015).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happiness: which contexts matter?.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1), 241-255. DOI : 10.1007/s10902-014-9506-7.
- 39) Hills, P. & Argyle, M. (1998). Positive moods derived from leis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happiness and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5(3), 523-535.
- 40) Lee, B. & Zhang, A. (2010). Women's leisure and leisure satisfaction in contemporary urban China. *World Leisure Journal*, 52(3), 211-221. DOI : 10.1080/04419057.2010.9728284.
- 41) Kraaykamp, G. (2002). Cumulative Advantages and Inequality in Lifestyle: a Dutch Description of Distinction in Taste. *Journal of Social Sciences*, 38, 121-143.
- 42) Kraaykamp, G., Van Gils, W. & Ultee, W. (2008). Cultural Participation and Time Restrictions Explaining the Frequency of Individual and Joint Cultural Visits. *Poetics*, 36, 316-332. DOI : 10.1016/j.poetic.2008.04.001.
- 43) Mouratidis, K. (2019). Built environment and leisure satisfaction: The role of commute time, social interaction, and active travel.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80, 102491. DOI : 10.1016/j.jtrangeo.2019.102491.
- 44) OECD(2015). Better Life Index Edition 2016. Data extracted on 6th Jun 2016.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 SetCode=BLLI>.
- 45) Orthner, D. K. & Mancini, J. A. (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27-137.
- 46) Orthner, D. K. & Macini, J. A. (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25-137.
- 47) Wang, M. & Wong, M. S. (2014). Happiness and leisure across countries: Evidence from international survey dat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85-118. DOI : 10.1007/s10902-013-9417-z.
- 48) Warde, A. & Tamboulon, G. (2002). Social capital, networks and leisure consump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0, 155-180. DOI : 10.1111/1467-954X.00361.

■ 투 고 일 : 2022년 09월 23일
■ 심 사 일 : 2022년 10월 28일
■ 계 재 확정 일 : 2022년 11월 23일